

# 北 核실험 파장

북한의 핵실험 이후 15년동안 지속돼온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최대 위기 맞이한 현대의 대북사업 =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989년 첫 방북에 이어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소떼 방북으로 본격화한 대북사업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변할 때마다 풍랑을 맞았지만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현대그룹이 98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자그마치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98년 이후 1조 5천억 투자

2003년 8월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그를 총수인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큰 아픔까지 겪었다.

그러나 대북사업은 계속됐으며, 정몽헌 회장의 미망인 현정은 회장으로 이어진 대북사업은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2003년 사수 파동으로 두 달 정도 관광이 일시 중단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면 이번에는 중단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질 공산이 크다.

현 회장은 북핵 사태가 터진 이후 일련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에서 별도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대북사업을 차

고, 현대그룹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최악의 경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강산 관광은 과거에도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관광 초창기인 1999년 민영미씨 역류 사건으로 한 달 반, 2003년 사수 파동으로 두 달 정도 관광이 일시 중단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면 이번에는 중단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질 공산이 크다.

현 회장은 북핵 사태가 터진 이후 일련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에서 별도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대북사업을 차

질없이 진행하고 북한 체류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여행객들 불안... 이탈 가속화

◇금강산 관광 이탈 가속=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객의 취소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출발이 예정됐던 관광객 1천 263명 중 30%에 이르는 395명이 금강산행을 포기했고 11일 오전에는 관광객 886명 중 43%인 381명이 관광을 취소했다. 금강산 관광 포기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9일 33명(6.1%), 10

일 395명(31.3%)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단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연수 등 단체 여행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행객들의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아산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기야 현대아산은 11일부터는 언론에 금강산 관광 취소 현황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격이나 북핵 사태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관광 취소 사태가 계속 보도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벼랑끝 몰린 현대 對北사업

## “관광객 1명 있더라도 계속해 나가겠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북핵실험 사흘째인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국내 주요 대북사업 기업인들은 “민족으로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체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대북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주로 들었다”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은 “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겠다”며 “금강산 관광객이 단 1명이라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 금강산 관광 잇단 취소 15년사업 뿌리째 흔들

## 요동치는 증시...일단은 정석투자

### 북핵변수 불확실성 커져 실적 투자를

주식시장이 혼돈의 질곡으로 빠져들었다.

북한 핵실험으로 형성된 암운이 시장에 짙게 드리우면서 외부 충격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 여파로 상당기간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위험관리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람직한 대처법으로는 실적주 위주의 정석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11일 주식시장은 북한 핵 변수로 인해 또 한번 흔들렸다. 개장을 앞두고 전해진 일본 언론의 2차 핵실험 보도로 투자심리가 다시 냉각되면서 동시호가 때 강보합 출발이 예상됐던 지수가 급락세로 돌변한 것.

코스피지수는 이날 10.69포인트 하락 출발한 뒤 2차 핵실험이 오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폭을 줄여 2.88포인트 내린 1325.49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더 크게 흔들려 6.28포인트 급락세로 개장한 뒤 9.76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0.78포인트 오른 555.48로 마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문가들은 “또 한번의 변동성 확대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의 대응전략도 엇갈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 만큼 한 발짝 증시에서 물러나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미 어느정도 조정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추세가 유효한 만큼 저점 매수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3·4분기 어닝시즌이 개막한 데 맞춰 실적 우수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투자법이 가장 유효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장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면서 “북한 핵실험과 이를 앞으로 다가온 옵션 만기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막연히 시장의 반등을 노리거나 개별종목의 단편적인 호재를 찾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무신들의 잔치?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6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고무신을 보고 흥미로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필요하다면 경기부양책 쓰겠다”

## 재경부, 북핵여파 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시사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기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북한의 핵실험 사태 이후 경기 부양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북한 핵실험 사태 전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지만 향후 이번 사태의 진전 상황과 세계경제, 유가의 움직임을 좀더 면밀히 관찰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언론이 보도한대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대

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들보다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유의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학교·학과별 차등 '논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대학생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금융공사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대학생은 6천259명으로 지난해 2학기 110명, 올 1학기 558

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올 2학기부터 도입한 대학생 신용평가시스템(SCSS) 때문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학제별(2년제~4년제), 과정별(학부-대학원), 학교·소재지별로 점수를 매겨 최대 5%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 1년 8개월전엔 빚쟁이 실직자 월수익 100억 거부로 미 20대, '유튜브 닷컴' 창업 대박

블과 1년8개월전만 해도 차드 헐리(29)와 스티브 켄(27)은 온라인 결제회사인 페이팔을 그만 둔 뒤 새 직장을 구하던 실직자였다.

신용카드로 잔뜩 빚을 지고 있던 두 사람의 생애를 바꾼 행운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1월.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이메일로 보내지니 파일이 너무 크고 온라인에 올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짜증이 났다.

고민하던 두 사람은 아도브 플래시 기술을 이용해 비디오를 손쉽게 온라인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이디에나대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탁월한 경영 감각을 가진 차드, 일리노이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수학적 재능을 가진 켄,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올려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닷컴’(YouTube.com)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지난해 1월 실리콘 벨리의 차고에서 출발한 유튜브는 5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같은 해 5월 일반에 처음 공개된 직후부터 주목을 받았다. 6개월 뒤인 11월 공식 출범 때인 벤처 자본회사인 세코이아 캐피탈이 350만달러를 투자하고, 페이팔의 최고재무담당인원(CFO)을 지낸 뢰프프가 이사로 참여하는 등 급성장을 예고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임정현의 기타 비디오로 널리 알려지게 된 유튜브는 현재 6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탐내던 구글이 9월 자신들의 기업인수 합병사상 가장 많은 액수인 1조5천800억원에 유튜브를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켄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광고 비디오를 함께 올릴 경우 당장 자신의 수입이 월 1천만 달러(95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바가지'

### 우동 한그릇이 6,000원-업소마다 제각각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휴게소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로공사차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김밥, 라면, 가락국수 등 분식 가격이 휴게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우 및 영동고속도로에서 판매되는 가락국수 250여 개 중 120여개는 시중가(3천원)보다 비싼 4천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6천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A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가락국수는 한 그릇에 2천500원이지만 경우고속도로 B휴게소는 6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육계장의 경우 경우고속도로 C휴게소는 3천500원을 받고 있지만 D휴게소의 육계장은 5천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가락국수의 경우 어묵이나 튀김 등이 첨가되면 그만큼 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휴게소마다 1천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휴게소 업체 관계자는 “음식이 모두 다른 회사에서 제각각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져 납품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스타프레야’ 짝퉁 아니다

### 상표분쟁 ‘스타벅스’ 토종업체에 패소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가 ‘짝퉁 상표’ 논란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 토종업체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무릎 꿇었다. 특허법원 특허5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이아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측의 상표인 ‘STARPREYA’(스타프레야)가 먼저 등록된 원고의 ‘STARBUCKS’(스타벅스)와 유사하며, 이는 주지·저명상표인 원고 상표의 명칭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원고의 상표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이 다르고 ‘PREYA’(프레야)와 ‘BUCKS’(벅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 상표의 ‘STAR’(스타)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여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서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IT 제조업 경쟁력

# OECD 회원국중 1위

IT제조업이 무역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간 비교를 위해 도입한 국제비교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또 IT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2004년 기준 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보통신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OECD 정보통신위원회 51차 정례회의에서 발표된 ‘IT 아웃룩(Outlook) 2006’에 이 같은 실적이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IT 아웃룩 2006에 따르면 한국은 또 국내 산업 부분중 IT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비율이 세계 2위로 나타나 IT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수출경쟁력이 있어 OECD 국

가 중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 IT 분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OECD 국가 중 2번째였으며 초고속망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25명을 기록해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IT Outlook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IT산업·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IT와 국가·세계 경제와의 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리서치&리서치(광주지사)	설문관리 및 데이터 출력업무 담당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352-7375
H&T아우토시스템	[HNT]SK텔레콤 미납 상담원 모집(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13	062-350-6333
(주)미보	지재구매관리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946-7000
(주)광일기공	영업,생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3	062-951-6013
구성HMC	정규직 병원영업 및 관리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200~2400	10/13	062-951-5506
휴먼전자*	경력직 여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800~2000	10/13	062-600-7522
비이오광기반기술개발사업단	실험실 연구 보조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13	062-530-4916
(주)서림인드스트리	[신영파크호텔]전산 및 인사/총무 사무업무 담당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0/14	062-228-8000
(주)오픈테크놀로지	수석 웹디자이너 경력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971-7119
(주)기린	영업관리(광주) 수시채용공고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51-780-3123
(주)대광엔탈	정규직 병원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223-8474
(주)이프로	웹디자인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16	062-512-8112
(주)코지전자	물류배송 및 창고관리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20	062-513-3600
삼창기업*	호남사업소 경영비공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0	031-458-8866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